

선생님, 교과서 필요해요?



김혜나

울산 남목초등학교 교사

“선생님, 오늘 교과서 필요해요?”

수업을 시작하기 전 우리 교실에서 빠지면 섭섭한 질문이다. 교과서, 학습지, 공책 등 하루에도 몇 번씩 학습 도구 선택에 시행착오를 겪는 신규 교사의 반에 적응하기 위한 학생들 나름의 생존 전략이다. 나도 이제는 당연하다는 듯 답한다.

“오늘은 교과서만 있으면 돼요.”

하지만, 이 질문이 우리 교실에 자리 잡기까지도 제법 긴 시간이 걸렸다. 나와 학생들 사이에, 교과서에 대한 시선 차이가 있다는 것을 간과한 탓이다. 이

때까지 나는 교과서를 정해진 지식을 전달하는 매개체에 불과하다고만 여겼다. 내가 학생일 때의 시각 그대로, 교과서는 수동적인 학습자를 만들 뿐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그러나 막상 교단에 서 보니, 교과서와 학생은 상호작용을 통해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 내고 있었다.

1. 첫 교실, 교과서의 빈자리

신규 발령으로 맡은 첫 학급, 첫 국어 시간. 많은 고민 끝에 나는 학습지와 활동 자료로 짝 채운 수업을 준비했다. 짧은 책일지라도 책 한 권을 끝까지 읽는 경험을 하게 하고, 질문과 토론을 통해 배우는 학생 중심 수업을 꿈꿨다. 요즘 학생들은 책보다 영상에 더 익숙하고, 문해력이 낮다는 말을 자주 들어서일까, 나 역시 처음에는 걱정이 컸다. ‘책 한 권을 직접 읽고 이야기 나누는 활동이 잘 이루어질까?’ 하지만 막상 수업이 시작되자, 학생들은 생각보다 훨씬 뛰어난 독자였음을 알게 되었다. 삽화 속 소품이 변한 이유를 스스로 알아내며 숨겨진 의미를 찾았고, 주제를 스스로 파악하고 의견을 나누었다. ‘요즘 아이들은 책을 안 읽는다’라는 말이 무색할 만큼, 아이들은 이야기를 통해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꺼내는 데 능숙했다.

학생들과 다양한 의견을 공유한 뒤, 그 내용을 매 차시 학습지에 차근차근 쌓아 나갔다. 성취 기준과 학습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학습지를 구성하였으므로, 교과서는 특별히 활용하지 않았다. 1차시, 2차시...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마음이 놓였다. 문장 하나 끝마치는 것조차 어색하게 느껴지던 첫 수업에 비해 많이 나아진 듯 보였다. 그렇게 1단원의 마무리를 위해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복습해 보자고 이야기했을 때였다. 한 학생이 조용히 손을 들고 말했다.

“선생님, 교과서는 하나도 안 했는데요?”

순간 나는 당황했다. 믿었던 친구에게 배신을 당한 것만큼 당혹스러웠지만, 겨우 정신을 차려 답했다. “1학기에 교과서로 배운 내용 전부 기억나니? (아니요) 교과서나 학습지에 쓰는 것보다 여러분이 일상에서 배운 내용을 기억하고 활용하는 것이 더 중요해요.” 그러자 이해했다며 고개를 끄덕이는 학생들과 함께 안도감이 찾아왔다. 하지만 수

업이 끝난 후에도 종일 그 학생의 목소리가 머릿속을 맴돌았다. 선생님, 교과서는요? 교과서는요…….

아직도 나를 떠나지 않는 이 메아리는 나에게 중요한 반성의 기회를 주었다. 학생들의 흥미를 끌기 위한 활동 중심 수업에 몰두하느라, 정작 학생들이 교과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고려하지 못한 것이다. 그제야 활동 중심 수업과 교과서 활용은 상호 배제적이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교사에게 교과서는 수많은 학습 도구 중 하나이지만, 학생들에게 교과서란 수업의 기준점이자 학습 계획의 길잡이다. 이를 통해 나의 시각에도 변화가 생겼다. 교과서는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책이 아니라, 수업의 구조와 흐름을 확인하고, 학생에게 '내가 지금 배우고 있다'라는 안정감을 주는 심리적 장치임을 알게 된 것이다.

2. 두 팔 가득, 교과서의 무게

교육대학교 학생 시절, 나는 과제를 수행하기 전 출판사별 교과서를 전부 살펴보고 싶어 했다. 같은 단원이라도 출판사마다 제시하는 활동 자료나 문제가 미묘하게 달랐다. 어떤 교과서는 글과 함께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만화를 곁들였고, 어떤 교과서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사고를 확장하도록 구성되어 있었다. 그 차이를 놓치면 안 될 것 같았다. 그래서 과제를 시작하기 전, 늘 누구보다 빠르게 교과서와 지도서를 사수하러 도서관으로 향하고는 했다.

그러나 대출 가능 도서는 1인당 5권뿐. 결국 동기들과 함께 교과서를 나누어 빌리고, 두 손 가득 책을 들고 기숙사로 돌아오기 일쑤였다. 책상 위에는 늘 10여 권의 교과서가 높이 쌓여 있었다. '수업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는 알아야 한다'라는 책임감과 '좋은 수업을 만들고 싶다'라는 열정으로 수많은 책장을 넘겼다. 그렇게 한 권 한 권 쌓인 책들의 높이만큼 좋은 수업을 할 수 있다고 믿었다.

그때의 나는 '좋은 수업'이란 철저히 준비된 수업, 교과서의 빈틈을 촘촘히 메우는 수업이라고 믿었다. 출판사별 단원 구성과 활동의 순서를 표로 정리하며 더 나은 활동은 무엇일지 고민하고, 수정에 수정을 거듭했다. 학생들이 직접 수업의 의미를 구성하고, 텍스트를 비판적으로 읽도록 하는 수업이 좋은 수업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정작 나는 누구보다도 교과서와 지도서를 신봉하던 셈이다.



그렇게 이고 온 교과서들에, 나는 졸업을 빚지고 있다. 많은 자료를 소화하면서 성장하였고, 그때의 그 열정은 분명 교직 생활의 밑거름이 되었다. 그러나 동시에 쌓여 있던 교과서 위에는 내가 '교과서를 넘어서는 교사'가 되어야 한다는 막연한 신념도 자리나고 있었다. 그 믿음이 결국 '교과서 없는 수업'을 구성하게 한 것이다.

한편, 수업 실연이라는 특성이, 교과서가 없는 환경을 더욱 익숙하게 만들기도 했다. 강의실에는 교과서가 배부되어 있지 않아 늘 학습지를 인쇄해 나누어주곤 했기 때문이다. 교과서를 사용할 경우 복사해야 할 장수가 훨씬 많아지고, 준비 과정도 번거로웠다. 깔끔하게 정리된 학습지는 리포트 사이에 첨부하기에도 훌륭한 자료였다. 그렇게 나는 자연스럽게 교과서를 대체하는 수업 자료 제작에 익숙해졌고, '교과서 없이도 충분히 수업할 수 있다'는 막연한 자신감을 품게 되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열정이 앞서다 보니 당시의 수업은 지금 생각하면 너무나 무모했다. 한 시간 안에 활동을 세 가지씩 넣고, 발표와 토의, 글쓰기까지 모두 담아내려 했다. 교과서를 정밀하게 분석한 만큼 '이 정도는 해내야 완벽한 수업이지'라는 욕심이 생겼다. 그러나 당연하게도 실제 교실은 '모범생 역할을 연기하는 대학생들'처럼 움직이지 않았다. 학생들의 집중 시간은 생각보다 짧았고, 한 가지 활동을 깊이 있게 다루는 것이 훨씬 더 의미 있다는 사실을 그때는 미처 몰랐다.

3. 다시 만난 세계, 교과서

그렇게 수업을 준비하던 때와 달리, 교사가 된 나에게 주어진 것은 출판사 한 곳의 교

과서와 지도서 한 권이었다. 지도서 바깥에 더 좋은 활동은 없을까? 결국 학생들의 흥미를 끌 수 있는 자료를 찾아 인터넷을 찾아 헤매고, 다양한 학습지를 인쇄했다. 학생들도 처음엔 즐거워했다. 교과서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수업, 나름의 호응도 있었다. 그렇지만 이상하게 수업이 끝나면 아이들은 꼭 물었다.

“선생님, 이거 버려도 돼요?”

그때마다 내 답변은 달랐다. “네. 종이로 분리수거하세요.”, “아니, 버리지 말고, 잘 모으세요.”. 대답하면서도 회의감이 들었다. 버려도 되는 학습지라면 왜 만들어야 하는 걸까? 종이 쓰레기만 늘어나는 것은 아닐까? 공들여 만든 학습지가 교실 바닥을 굴러다니고, 책상 서랍 속에서 구겨져 나오는 일에도 익숙해졌다.

그래서 나는 아이들에게 학습지를 교과서에 붙이도록 하였다. ‘그래, 이렇게 붙이면 아이들도 교과서를 대신해서 학습지로 공부하는 걸 알겠지?’ 그렇게 교과서는 학습지를 붙이는 스크랩북으로 전략하였다. 하지만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교과서만으로 이루어지는 수업도, 학습지만으로 이루어지는 수업도 모두 내가 원하는 방향은 아닌데….

그때부터 교과서를 다시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활동지로 대체했던 단원 구성, 문제 제시 방식, 삽화의 배치에는 이미 세심한 의도가 숨어 있었다. 교과서로 하는 수업은 모두 획일적인 방식이 될 것이라는 생각은 무지에서 비롯된 오해에 가까웠다.

5학년 2학기 ‘합동과 대칭’ 단원을 교과서로 열심히 지도하던 어느 날이었다.

“선생님, 활동 자료 뜯어요?”

다행히 이번에는 당황하지 않는다. 예상치 못한 질문에도 어느덧 익숙해진 탓이다. 그렇지만 활동 자료라니 무슨 소리지? 앞자리에 앉은 학생의 교과서를 들여다보니 아차! 지도서로 교과서를 대신하느라 실제 교과서의 활동 자료가 얼마나 다양한지 미처 몰랐던 것이다. 선생님 책에는 활동 자료가 없어서 몰랐다고 솔직하게 털어놓고 함께 자료를 살펴보았다.

종이 두 장을 포개어 합동인 도형을 만드는 활동을 위해 나누어주려던 색종이가 무색하게도, 교과서 속 활동 자료에는 이미 접는 선까지 완벽히 인쇄되어 있었다. 두 도형이 겹치는지 확인하고, 대응점 등을 찾을 수 있도록 투명 필름으로 된 활동 자료까지 마련되어 있었다. 학생들이 직접 손으로 만지고 돌리며 학습할 수 있게 세심히 설계된 모습이었다.

단 한 가지 흠이라면, 수업 시간 내내 “선생님, 이거 다 뜯어요?”라는 질문이 쉴 없이 이어진다는 것. 그리고 활동 자료였던 필름이 영원히 교실 바닥을 떠도는 것 정도 아닐까.

덧붙여, 학생들은 자료의 소중함을 아직 잘 모른다. “이거 꼭 자료 뜯어서 해야 돼요?”라는 질문에는. 그런 과정 없이도 풀 수 있다는 자신감마저 섞여 있다. 그런 학생들에게는 되물어본다. “집에서나 학원에서 직접 오리고, 붙이고, 돌려서 푼 적 있어?” 학생들의 대답은 늘 같다. “아니요.” 그러면 나도 항상 같은 답변을 해준다. “학교에서만, 교과서니까 할 수 있는 걸 이 시간에 한번 해보자.” 활동을 시작하면, 처음에는 귀찮아하던 학생들도 금세 집중하며 손에 쥔 교구를 즐긴다. 그런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교실의 알 수 없는 미래를 이겨내는 힘은 특별한 기적이 아니라, 변치 않는 마음으로 반복하는 수업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느낀다.

4. 조용한 동행, 교과서의 길


학생 상황, 교실 환경, 전담 시간 조정 등 교실에서는 예측할 수 없는 사건이 끊임없이 발생한다. 이럴 때 수업 자료가 풍부한 교과서는 큰 힘이 된다. PPT, 활동지, 단원 정리용 게임 등 다양한 지원 자료가 풍부한 출판사의 교과서는 당장 교실에 투입되어 수업을 시작해야 할 때도, 통합학급 학생을 위한 자료를 준비해야 할 때도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준다. 그야말로 교사에게 한 줄기 빛! 수업 경험이 조금 더 쌓이자 알게 되었다. 모든 것이 변해도 잘 만들어진 교과서만은 항상 같은 자리에서 나를 기다린다는 사실을.

그래서 한동안은 교과서로만 수업을 진행해 보았다. 학습지 없이, 교과서 한 권으로 단원 전체를 이끌었다. 설명하지 않아도 학생들은 교과서를 읽고, 그 안에 있는 질문에 답하는 것에 익숙했다. 배운 내용 정리를 위한 질문을 하더라도 훨씬 정돈된 답변이 나

왔다. 학습 목표 도달 여부를 판단하는 것도 쉬웠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또 다른 고민이 생겼다. 아이들의 눈에서 빛이 사라진 것이다. 반복되는 수업에 집중도가 떨어져 가는 것이 눈에 보였다. ‘교과서 수업은 안정적인’이라는 나의 안심, 아이들에게 ‘재미없는 수업’으로 느껴진 건 아닐까? 교과서가 수업의 중심이어야 한다는 생각과, 학생의 흥미를 끌어야 한다는 책임감 사이에서 다시 고민이 시작되었다.

물론 모든 일에는 균형이 필요하다. 그러나 고백하자면 나는 아직 그 균형점을 찾지 못했다. 매시간 교과서를 살피며 ‘이 활동은 학생들에게 의미 있을까?’ 고민하지만, 동시에 ‘이 활동이 아이들에게 지루하지 않을까?’ 불안하기도 하다. 어떤 날은 교과서에 충실한 수업이 주는 안정감에 안도하고, 또 어떤 날은 아이들의 반짝이는 참여도를 보며 교과서를 넘어선 수업의 매력을 느낀다.

그래서 나의 수업은 여전히 새로운 실험실이자 모험이다. 어제의 경험이 오늘의 시도가 되고, 오늘의 시도는 내일의 반성과 또 다른 시도로 이어진다. 그렇게 끊임없이 흔들리면서도 나는 여전히 교과서를 펼친다. 교과서가 필요하냐는 질문은 이제 단순히 책 한 권의 필요를 묻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과서를 통해 진정 배우고자 하는 것이 무엇 인지를 묻는 말이 되어 내 안에서 여전히 메아리치고 있다. 

필자 소개

초등학교 교사로서, 매일의 수업 속에서 교과서와 아이들 사이의 거리를 좁히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 교실에서의 작은 경험이 오랜 기간 남는 배움이 되길 바란다.

선생님, 반짝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늘 걱정합니다.

지금 잘하고 있는 걸까.

나의 부족함이 학생들에게 짐이 되지 않을까?

더 멋진 수업, 더 특별한 교실을 꿈꾸지만

때로는 그 기준이 나를 작게 만들기도 하죠.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교실이 항상 재밌고 특별해야 하죠?

매일 먹는 집밥처럼

특별하지 않아도 든든한 하루.

그저 일상을 이어가며

서로에게 편안한 존재가 되어주는 것

그것이 지금 교실에 가장 필요한 마음 아닐까요

담담하게 매일을 살아가는 선생님의 모습이

학생들에겐 가장 소중한 배움입니다.

오늘도 교실의 평범한 일상을 지키는

모든 보통의 교사를 응원합니다.

● **지학사** X **학교 한줄**



선생님의 올바른 가치와
참된 가르침처럼
77년간 교과서를 만들어
온 사명으로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교과서 발행부수 1위 기업, (주)미래엔

* 2024년 발행 부수 기준

Mirae N



미래엔 교수지원플랫폼 엔터처
www.m-teacher.co.kr

